



즉시 배포용: 2023년 1월 20일

KATHY HOCHUL 주지사

## HOCHUL 주지사, 오피오이드 치료 프로그램에 750만 달러 지원 발표

*보조금을 활용해 부프레노르핀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뉴욕주 오피오이드 합의 기금을 통해 처음으로 시행*

*치명적인 과용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뉴욕의 오피오이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 인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와 기타 치료 프로그램이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에 대응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부프레노르핀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750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독서비스지원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가 집행하는 보조금은 가장 먼저 뉴욕주 오피오이드 합의 기금(Opioid Settlement Fund)을 화로용하여 오피오이드 사용 질환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최대 15개를 마련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뉴욕 주민이 오피오이드 남용 및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오피오이드 합의 기금을 통한 이번 자금 지원은 약물 사용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며 생명을 구하는 치료의 접근성을 증대하고 뉴욕주의 오피오이드 사태를 전환할 것입니다."

기금은 주 전역의 프로그램 15개에 최대 500,000 달러를 제공하여 부프레노르핀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OASAS 인가를 받은 치료 서비스 제공자, 뉴욕주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운영 클리닉, 병원, 주사 서비스 프로그램, 위험 완화 프로그램 등이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프레노르핀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오피오이드 질환을 치료할 수 있지만, 많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치료 시작과 지속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숫자를 결과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접근성을 개선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당일 즉시 부프레노르핀 치료 및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중독서비스 지원청 커미셔너인 **Chinazo Cunningham**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비스 접근성 확대는 당일 치료, 편견 없는 접근, 처방 의약품의 유연한 사용, 다양한 지역에서 의약품 접근성 증대 등 위험 완화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주 전역의 인구와 지역사회가 오피오이드 남용 질환 치료를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OASAS**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뉴욕주는 오피오이드 제조사와의 다양한 합의로 **20억 달러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합의의 일부는 직접 지자체에 지급되었고, 잔액은 전용 기금에 귀속되어 오피오이드 사태 대응을 위한 예방, 치료, 회복, 위험 완화, 교육 노력을 지원합니다.

전용 기금을 설립한 법안에 따라 오피오이드 합의 기금 자문 위원회(**Opioid Settlement Fund Advisory Board**)를 창설하여 합의금 사용에 대한 권고안을 내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11월 1일** 첫 번째 공개안을 제시했으며, 위험 완화 서비스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뉴욕은 **2021년**부터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약물 남용 사망의 대부분이 펜타닐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오이드로 인한 남용 사망이 **4,766명**으로 작년보다 **14%** 증가.
-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응급외래환자가 **10,430명**으로 작년보다 **12.6%** 증가.
- 응급의학서비스(**Emergency Medical Services**)의 날록손 처방이 **19,139건**으로 작년보다 **11.8%** 증가.

**OASAS**는 매년 약 **1,700개**의 예방, 치료, 유해 감소 및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큰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시스템 중 하나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680,000명**이 넘는 개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오피오이드 치료 기관으로서 **OASAS**는 중독서비스와 관련하여 주-연방 공조를 조율하고 합의 기금 사용을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에 포함된 기금이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보건부는 주 전역에 걸쳐 오피오이드 남용과 의존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유해 물질 감소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을 지역 치료 및 피해 감소 서비스에 연결하기 위한 전자 추천 시스템인 **New York MATTERS**, 뉴욕시 외부에서 과다복용률이 가장 높은 **24개 카운티** 보건부에 자금을 제공하여 1차 치료, 교정, 위험 완화, 응급실, 공공 안전 등을 강화하는 지역 보건부 이니셔티브(**Local Health Department Initiative**)를 비롯해, **900개** 이상의 등록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예방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John McDonald**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피오이드 사태의 영향은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인이자 뉴욕 주민으로서 보건부는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를 통해 생명을 구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가 시정방침에서 제안한 기관간 접근법에 박수를 보냅니다. 따라서 보건부는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기타 매체를 통해 뉴욕 주민에게 오피오이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남용의 징후를 인지하고 오피오이드 남용 예방 프로그램(Opioid Overdose Prevention Program)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보건부는 주 전역에서 날록손 처방을 진행할 것입니다."

위독/해독, 입원, 주거 및 통원 치료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중독 치료는 뉴욕주 중독 서비스 및 지원청 [치료 서비스 이용 안내판\(Treatment Availability Dashboard\)](#) 또는 [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혹은 가족이 중독으로 고생하는 뉴욕주민은 뉴욕주의 무료 상담 전화인 HOPEline에 주 7일 24시간 1-877-8-HOPENY(1-877-846-7369)로 전화하거나 HOPENY(단축코드 467369)로 문자를 보내서 도움을 받고 희망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